▶▶ 매일 INDEX

4면
"AI디지털교과서 강행 '안될말'"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음 12월 22일) 제3669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내 출생율 반등 저출생 극복 청신호

무주 · 완주 · 순창 등 9개 시군 출생아수 ↑
전북자치도 맞춤형 인구정책 등 효과 '톡톡'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가능성을 보여줬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05명 증가한 6,897명으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 이 같은 성과는 도내 9개 시군에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무주군이 2023년 43명에서 2024년 62명으로 19명(44.1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완주군은 411명에서 548명으로 137명(33.33%), 순창군 79명에서 98명으로 19명이(24.05%) 늘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밖에 고창군 32명(23.36%), 부안군 23명(17.69%), 남원시 22명(8.66%), 익산시 57명(6.18%), 정읍시 19명(5.64%), 군산시 17명(1.73%)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출생율 반등이 코로나19 이후 결혼과 출산 증가라는 전국적 추세와 함께, 도와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 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난임 진단비 지원 및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등이다.

특히, 완주군은 지난해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무주군의 경우 임산부 건강 지원사업, 출생아 첫 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 확대 등 특화된 지원책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결혼·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목표로 △'반할 주택' 500호 공급 △청년 일자리 확대 △웨딩 비용 부담 경감 △전국 최초 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 지원 △24시간 보육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출생아 수 반등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인구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구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0일 전주 서신동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에서 김관영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을사년(乙巳年) 어르신 섬김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어르신이 행복한 전북자치도'

전북자봉센터, 새해 어르신 섬김행사 진행
명절음식 나눔 · 올림픽 유치 퍼포먼스 등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에서 '2025 을사년 어르신 섬김행사'를 시작으로 자원봉사 분위기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어르신 400여명을 초청해, '어르신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란 주제로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최형렬 기획행정위원장,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도·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와 함께 어르신을 위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매년 1월 새해를 맞아,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어르신들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떡국 및 명절음식 나눔, 방한용품 전달 등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로 배려·격려하고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도민 모두가 서로 돕고 나누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내빈과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무병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가래떡 커팅식 등 신년 다짐행사에 동참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첫 시작을 알렸으며, 문화공연과 떡국나눔 등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매년 1월 떡국나눔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기원하고 공경의 뜻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실현을 위해 어르신들의 귀한 경험과 지혜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영호 전북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번 어르신 섬김행사는 도내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협력하여 어르신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과 섬김의 봉사정신을 되새기고자 마련됐고, 다가오는 설 연휴와 함께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맞이하는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며 인사를 전했다.

김두봉 노인회 전북연합회장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전북을 위해 모두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새로운 환경 변화를 준비하고 대응하여, 노인들의 역할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신년을 맞아 초청해준 전북특별자치도센터 및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참석자 전원이 을사년 시작을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고 따뜻한 떡국 한 그릇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도 진행해 전북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과 조화를 이뤄 세계를 맞이하겠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강력한 염원과 희망에 어르신과 참석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 운영

내달 14일까지… 소비자 피해 신속 해결

"설 명절 특수를 노리는 소비자 피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창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협력하여 운영된다. 창구에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이 배치되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안내한다.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 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설 명절 기간 동안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매년 명절 기간 동안 약 70여 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에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정모 씨(70대)는 홍보차 흑마늘 건강식품을 보내줄테니 구매 의사가 없으면 반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제공된 건강식품을 홍보용 시음 제품으로 생각하고 지인들과 함께 섭취했으나, 이후 본품 대금을 청구받아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에 신고했다. 창구는 방문판매법 위반 사실을 업체에 고지해 납아 있는 제품만 회수하고 대금 청구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명절 특수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은 제수용품이나 선물세트를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발생 시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에 신고하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 063-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063-282-9898)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1997, 무주 · 전주 동계U대회의 환희
2014, 못다 이룬 동계 올림픽의 꿈을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로 이어갑시다

전북이 가능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전북이니까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올림픽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도시끼리 연대가 가능합니다.
고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올림픽!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66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전진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99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 전북특별자치도